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

보은군 **보 도 자 료**

■ 보은군 기획감사실 공보팀(☎540-3037)

■ 2022년 11월 11일(금)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은군, 제3회 보은장안농요 사진전시회 개최

- 보은장안농요 축제의 열기를 사진에 담다

자료문의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장 김선자(☎540-3371)
담당자 김지영(☎540-3372)
장안면 총무팀 황해봉(☎540-4092)

보은군이 주최하고 장안면 전통민속보존회(남기영)가 주관하는 '제3회 보은장안농요 사진전시회'가 지난 1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1월 30일까지 백두대간 속리산 관문 생태문화교육장에 전시된다.

이날 개회식은 최재형 보은군수, 구왕회 보은문화원장, 민간사회단체장 등 50명이 참여한 가운데 테이프 커팅식을 시작으로 개회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 6월에 열린 제4회 보은장안농요 축제 현장 모습이 담긴 모두 50점의 사진 작품을 선별 전시해 생생한 축제의 현장을 느낄 수 있다.

'보은장안농요'는 150여년 전부터 보은군 장안면 일대에서 전승돼 온 노동요로 과거 논농사는 인력으로만 해결해야 했기에 마을주민들이 협력하여 농사짓던 문화가 있었고 이때 고달픔을 잠시 잊고 신명나게 일하고자 불렀

던 노동요다.

남기영 장안면전통민속보존회장은 “이 자리는 지난 6월 제4회 보은장안농요 축제를 성대하게 마친 회원들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며 “이번 사진 전시회를 열기 위해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 고 말했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농요는 농사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지친 농민들에게 힘이 되고, 지역의 특색을 잘 반영하고 있는 한국 민요의 꽃” 이라며 “이번 사진전시회를 통해 보은장안농요의 생동감과 열정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한편 보은군 장안면전통민속보존회는 2017년 보은군 대표로 출전한 23회 충북민속예술축제에서 장안농요를 시연해 개인부분과 단체부분 대상을 수상했으며 2018년에는 59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충북대표로 참가해 금상을 차지해 장안농요의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렸다.

□ 보은군, 제28회 보은군농업인대회 성료

- 우수농업인 표창, 화합의 한마당, 회원공연, 전시 등 다양한 볼거리

자료문의 농업기술센터 인력교육팀 팀장 김응호(☎540-5741)
담당자 최은미(☎540-5742)

보은군은 농업인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한마당 큰 잔치인 ‘제28회 보은군농업인대회 및 제67회 보은군4-H경진대회’가 지난 11일 보은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재형 보은군수, 최부림 군의회의장, 박덕흠 국회의원을 비롯한 농업 관련 기관단체장, 농업인단체 회원과 농업인, 학교4-H회원 등 2,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사, 축사, 시상식,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수상자는 농업인대상 분야에 대상은 삼승면 이달혁씨, 최우수상에 속리산면 김효식씨, 보은읍 박장호씨 등 11명이 보은군농업인단체협의회장상을 수상했으며, 도지사표창 2명, 농업인단체 조직 활동 유공으로 군수 표창 9명, 군의회의장상 1명, 4-H 지도교사 등 모두 2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농업인대상 분야를 수상한 11명의 영농현황과 농업인단체 활동 등을 기록한 프로필을 전시하는 자리가 마련돼 수상자에게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녹색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천 결의문 채택과 생활 건강 연구회원들의 농작업 피로회복 체조, 여성농업인 회원들의 스포츠댄스 공연이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으며, 이 밖에 농업인 지식왕 선발대회, 민속놀이 한마당, 경품 추첨 등으로 농업인 화합의 한마당 큰 잔치가 펼쳐졌다.

전시행사로는 읍 · 면에서 생산되고 있는 대표 농산물과 가공제품을 전시했으며, 우리 쌀 소비 촉진을 위해 향토음식연구회에서 쌀을 활용한 요리와 전통문화 보존과 계승을 위한 전통문화연구회의 과제작품 등을 전시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보은군농업인단체협의회 김진권 회장은 “농업의 4차 산업화를 위한 농촌융복합산업과 스마트팜 등의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며 어려운 농업 환경을 극복하자” 라고 말했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 건설을 위해 지역 농가의 경쟁력을 높여 농가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 보은군 · 지역의료계가 힘을 합쳐 지역맞춤형 감염병 대응

자료문의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팀장 서정철(☎540-5660)
담당자 벅현정(☎540-5793)

보은군과 지역의료계 협력을 위한 ‘보은군 지역의료협의체’ 간담회를 지난 11일 개최했다.

보은군 지역의료협의체는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료계 간의 협력을 위해 지난 9월에 조직됐으며, 강성환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보은군의사회 2인, 병원장, 보건소장 등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지역의료협의체는 지역별 다양한 상황에 지자체와 의료계간 실시간 협의를 통한 신속한 대응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감염병 대응책을 찾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조직이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의료협의체 5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상황과 추이, 재유행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의료대응체계, 지역 내 감염취약시설인 요양시설 감염관리 방안, 대응 관련 정책 제안 등 지역 현안에 대한 토의 형식으로 이뤄졌다.

강성환 위원장(부군수)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협의체가 구성·운영됐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협의체를 통해 지역단위 중장기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기반 등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